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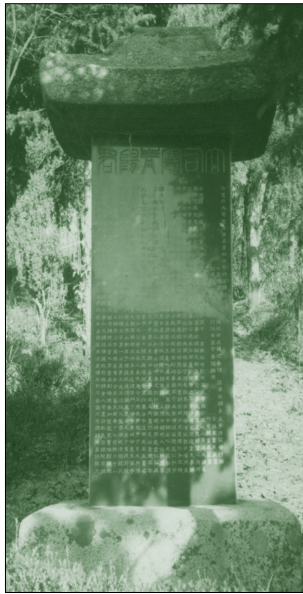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11世祖 大司憲 青陽君 諱 義謙(의겸) 神道碑銘 并書 中



▶ 청양군 묘소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 신도비

沈氏는 青松으로부터 이어 나왔는데 고려조에 위위승(慰尉丞)인 홍부(洪孚)라는 분이 있었고 그 뒤 이름 덕부(德符)는 문하시중으로 청성백(靑城伯)이었고 이분이 아들 안효공(安孝公) 온(溫)을 낳았으니 조선 때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버지이다.二代를 지나 사인(舍人) 순문(順門)은 연산군 때 유명했고 그의 아들 영의정 연원(連源)은 시호가 충혜공(忠惠公)이고 다시 그의 아들은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이름 강(綱)인데 부인은 李氏이고 증판서 대(藪)의 딸이다. 무릇 열 자녀를 길렀으니 인순왕후(仁順王后)는 그 첫째이고 공은 셋째인데 종숙부인 감찰(監察) 홍(泓)의 양자가 되었으니 어머니는 청주 韓氏이다.

대개 심씨가 귀하게 드날려 他門보다 특이했으니 조부 충혜공께서 성(盛)해서 넘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손자들의 이름에 겸자(謙字)를 달았고 공도 또한 자호를 손암(巽庵)이라고 했다.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들어갔다가 주서(注書)와 설서(說書)를 지내고 예조좌랑(禮曹佐郎)과 사간원 정언(正言)을 거쳐 옥당으로 들어가서 부수찬(副修撰)에 지제교(知製敎)를 겸했고 이조좌랑 때 사가(賜暇)^⑧를 얻어 호

당(湖堂)^⑨에서 공부하였다. 성균관 전적(典籍)과 병조좌랑 사헌부 지평(持平) 시강원 문학(文學)홍문관 교리(校理) 의정부 검상(檢詳) 사인(舍人) 사헌부 집의(執義) 사간원 사간(司諫) 부응교(副應敎) 및 여러 사(司)의 정(正), 전한(典翰), 직제학(直提學) 등을 두루 역임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올라 승정원 승지(承旨)가 되었는데 이후부터는 이·예·병·형·공조(吏禮兵刑工曹)의 참의(參議)를 두루 지내고 대사간(大司諫) 판결사(判決事)에서 대사헌(大司憲)으로 특승한 다음 다시 공·형·예조의 참판(參判)과 한성부 우윤(漢城府 右尹)과 개성유수(開城留守)를 지냈으니 이 때가 宣祖 乙亥(1575)년 이었다. 二년이 지난 뒤에 전라감사로 나갔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조정으로 돌아오니 이미 발붙일 곳이 없어서 파산(坡山)에 있는 시골집을 돌아가 쉬었다. 五年 뒤인 경진(好辰 1580)년에 예조참판으로 복귀했다가 함경도 감사로 나갔는데 오래 되지 않아 사퇴하게 되고 한가하게 지냈는데 정인홍이 조정 공론을 주장하고 양사(兩司)를 조정하였다. 二년 후 壬午(1582)년에 전주 부윤으로 나갔는데 이발(李潑)과 백유양(白惟讓) 등이 일을 꾸며서 공과 한때의 홀륭했던 분들이 함께 문망(文網)^⑩에 얽혀들었고 공이 병들어 죽

었다.

공은 기질이 날카롭고 활달하며 용모가 우뚝하고 크며 자기 몸을 다스림이 몹시 엄하여 의롭게 나아가고자 했으며 효우(孝友)하고 공손하고 검소한 것은 천성에서 나타났다. 척신이 있기에 더욱 의심받는 처지이나 선비들은 존중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인적이었기에 배척을 당했다. 이로부터 좋은 일에도 선조께서 여러 차례 공의 말을 싫어하였다. 강한 자는 명령을 즐겨하고 나약한 자는 뜻을 받드는 까닭에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손을 쓰나 공에게 진실로 죄가 있음은 아니다. 명종(明宗)과 선조(宣祖)의 사이에 있어 시원찮은 인물은 갈아치우고 뛰어난 인재는 끌어 올려서 맑고 밝은 정치를 후세에서 다르지 못했으니 다 공의 힘이다. 노소재(盧蘇齋)^⑪께서 해변으로 귀양갔다가 돌아와서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서로 만나게 된 것은 다행이나 뒤에 무슨 폐단은 없을까?』

그러므로 역시 공에게 혐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결국 선조 대에 와서 말하였다.

『내가 주자학(朱子學)을 본받고자 이혼(珥渾)^⑫의 당에 들어가고 싶으나 당시의 사람들이 이 두 분(李栗谷과 成牛溪)을 공의 당이라고 했으니 공의 당은 역시 빛나고 화려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불어났었다.』

공이 곤궁했을 때를 당하여 공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비록 백 번 곤욕을 치르더라도 주위의 어진 이들만 배척하지 않으면 죽어도 한될 바가 없다.』하였으니 역시 그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하는 충성을 엿볼 수 있었다.

- 註 -

⑧ 사가(賜暇) : 나라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한 휴가.

⑨ 호당(湖堂) : 독서당 조정에서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가려서 글을 읽게 하던 곳.

⑩ 문망(文網) : 상소문 등으로 인한 사건.

⑪ 노소재(盧蘇齋) : 노수신(盧守愼)의 號인.

⑫ 이혼(珥渾) :珥는 이울곡의 이름이고,渾은 성우계의 이름임.

<다음호에 계속>

青松沈氏 正郎公派宗會
任員改選

副會長	慶燮	義燮	貴燮	舜輔	炅燮	載云	弘輔	吉燮	容燮
總務	相悅	相萬	相杰	相鎮	允澤	揆植	載吉	勝南	
監察	泰燮	明燮	光燮	相熙	載成	光燮	興燮	順燮	性奎
理事	揆善	元燮	載云	載熙	載成	光燮	興燮	順燮	性奎

※ 個別通知를 省略하오니 인근 門中과 연락하시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단체로 오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31) 253-1806

◎ 二〇〇五年度 會務報告
◎ 二〇〇五年度 決算報告 審議 承認의 件
◎ 二〇〇六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案 審議 承認의 件
◎ 宗土處分 取得 訴訟 遂行 등 議決權 委任案 承認의 件
◎ 任員改選의 件
◎ 其他 宗務에 關한 事項

西紀二〇〇六年 五月 日

青松沈氏安孝公宗會
會長 沈斗燮

알림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公告

西紀 二〇〇六年度 安孝公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 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저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日 時 : 서기 二〇〇六年 五月 三十一日 (수요일)
十時 端午節祀 奉行
十一時 總會 開催

■ 場 所 : 水原市 靈通區 二儀洞 四〇一번지
安孝公墓前齋室

● 附議案件 ●

首卷續編 收錄目錄

首卷續編 (神道碑, 墓碣, 墓表) 目錄

本 首卷續編은 2002年度에 간행된 孝辰譜의 수권속편으로 경진보 수권에 수록되지 않은 많은 顯祖의 사적과 仕宦錄, 그리고 現代 人物錄등을 아래와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 1. 顯祖事蹟
神道碑文, 墓碣銘, 行狀 等
2. 官案 (邑誌)
留守, 府尹, 牧使, 郡守, 都事, 縣令, 縣監, 贈職, 壽職, 各榜目
3. 旌閭 (邑誌)
孝子, 孝女, 烈女, 烈婦, 人物
4. 顯祖年譜 (王朝實錄에서 발췌)
5. 現代人物錄 (各言論界年鑑參照 : 2004年度)
1) 官界
長官, 次官, 軍將星.
2) 教育界
大學校 : 總長, 學長, 教授, 副教授, 專任教授, 講師, 專任講師
初, 中, 高校 : 校長, 校監, 行政, 全國幼稚園現況
3) 各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長
歷代國會議員, 市道議會議員, 郡區議會議員, 面長 및 面議會議員
統一主體國民會議議員
4) 法曹界
(法院發行 2005年度 人事 記錄簿)
判事, 檢事, 辯護士.
5) 其他 各界 (2004年度 現況)
經營人, 醫療人, 體育界, 文化界, 言論界.

首卷續編(神道碑, 墓碣, 墓表)

- 世 官職(號) 諱 事蹟
五處山所 事蹟 및 二祭壇
青松 普光山 始祖山所 事蹟
咸悅 南堂山 二世祖 閤門祗候公
諱 淵 山所事蹟
安城 三世祖 青華府院君 諱 龍
山所事蹟
漣川 四世祖 青城伯 諱 德符
山所事蹟
淸州 粉坪洞 四世祖妣 淸州宋氏
山所事蹟
二世祖 奉翊大夫公 諱 晟 祭壇
四世祖 岳隱公 諱 元符 祭壇
顯祖事蹟
4 世祖 岳隱公 元符 景義齋記
4 世祖 正郎公 之浦 墓碣文
5 知成主事公派 世德碑文(井邑宗中)

- 世系碑
5 安孝公配位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行狀
6 石村公 孝尙 行狀
6 贈參判判官公 孝鼎 享壇碑銘
6 判官公 世叔 祭壇碑銘
7 承旨公 宗夏 墓表
7 兵曹參議公 潁 行狀
7 副司果公 太山 遺事
8 通仕郎 瑾 祀壇陰記
8 忠衛尉公 珪 墓表
8 通德郎公 璣 墓表
8 海州牧使公 安智 제단비명
8 贈左贊成 順路 墓碣
8 進士公 遜 墓碣銘
9 司憲府監察 希武 墓碣文
9 贈嘉善大夫 濱 族葬碑文
9 都正公 淳 墓碣
9 修撰公 達源 神道碑後記文
誌墓 貞夫人
9 進士公 幹 墓碣
9 成均進士 興源 祀壇碑
9 副護軍 弼倫 遺事
10 贈左承旨公 鱣 墓表
10 安岳郡守公 光門 墓碣
10 金海府使公 光憲 行蹟
10 忠壯公 岱 神道碑文
10 青坡府院君 銓 墓碣銘, 神道碑銘
10 贈領議政 鍵 墓表文
10 主簿公 鶴齡 墓表
11 副護軍公 溱 墓碣文
11 僉中樞府事公 安普 墓碣文
11 贈大司憲 鎬 墓誌
11 果川公 錦 墓碣銘
11 啓功郎公 錡 墓碣
11 訓練院判官 鐸 事蹟
11 吏曹參判 大亨 墓碣
11 司諫公 大孚 墓碣銘
11 驪州牧使公 友正 墓誌銘
11 贈吏曹參判 友俊 墓碣銘
11 正言公 芑 詠竹八絕帖後
11 贈兵曹參議公 宗明 行狀
11 贈左承旨公 仁謙 墓碣銘
11 正郎公 智謙 墓碣銘
11 贈吏曹參判 孝謙 墓碣銘
11 水運判官公 悌謙 行蹟
11 贈吏曹參判 昌壽 墓碣銘
11 守門將公 淸 墓碣銘
12 价川郡守公 宗敏 墓誌銘
12 參議公 宗道 設壇碑文
12 僉中樞府使 宗直 墓誌銘
12 嘉善大夫 彥謙 墓誌銘

- 12 杜岩公 敏謙 墓表
12 承政院都承旨 演 墓碣銘
12 嘉善大夫 澤 墓碣銘
12 贈領議政 諫 墓碣銘
12 通德郎 譚 墓表文
12 戶曹參議 謂 墓碣銘
12 礪山郡守公 仁補 墓碣銘
12 處士公 訓 墓表
12 贈領議政 恠 墓碣銘
12 教官公 憬 墓碣銘
12 贈戶曹參判 幅 墓碣銘
12 贈吏曹參議 惕 墓碣銘
12 金浦 郡守公 憤 墓碣
12 贈吏曹判書 昶 墓碣
12 摠管公 旭 墓碣
12 通政大夫公 嗽 墓表
12 訓導公 應濂 墓碣銘
13 旌善郡守公 俠 墓表
13 天安郡守公 俠 墓表文
13 永柔縣令 民覺 墓碣銘
13 贈大司憲應教 普龜 墓碣銘
13 副正公 光濂 亂禍感慕碑
13 贈領議政 光沔 墓表文
13 青安君承旨公 光洙 墓碣銘
13 副提學公 世鼎 行狀
13 贈吏曹參判 光世 墓誌銘
13 贈參判公 挺世 墓誌銘
13 貞敏公 長世 墓表
13 贈司僕侍正公安世 墓誌銘
13 贈吏曹參判公熙世 墓誌銘
13 贈戶曹參判 儒訓 墓誌銘
13 贈崇錄大夫 儒行 墓碣
13 嘉善大夫 儒績 墓碣
13 僉中樞府事公 鏞 墓碣銘
13 省峴察訪公 鏞 墓碣銘
13 省峴察訪公 欽 墓碣銘
14 陋菴公 之澤 墓碣銘
14 贈吏曹參議 之湜 墓表
14 左副承旨公 之漢 墓碣銘
14 贈吏曹參判公 之治 墓碣
14 獻納寒竹堂公 之淸 墓表文
14 參奉公 之灝 墓碣銘
14 承義郎公 之潤 墓表
14 副提學公 攸 墓碣銘
14 判中樞府事 檀 墓誌銘
14 觀察使 機 墓碣文
14 吏曹參判公 楹 行狀
14 廣州府尹公 楸 墓表
14 禮曹參議 權 墓碣銘
14 贈吏曹判書 槐 神道碑銘

- 14 禮曹參判公 杵 墓碣
14 刑曹判書 樸 神道碑銘
14 判中樞府事 梓 神道碑銘
14 僉中樞府事公 世文 墓碣銘
15 豐德副護府使 益善 墓表
15 青平都尉 益顯 墓誌銘
15 贈吏曹參判公 益成 墓碣銘
15 吏曹參議 漢柱 墓碣銘
15 贈吏曹判書公 若溟 墓誌銘
15 通德郎 壽漸 墓表
15 嘉善大夫 最良 墓碣銘
15 通政大夫 仲良 記蹟
15 通政大夫 季良 墓碣銘
15 鐵山府使公 夢良 墓碑文
16 正言公 尙鼎 行狀
16 朔寧公 廷耆 墓表
16 同知中樞府使 廷最 墓誌
16 普倚亭公 溍 不倚亭侍建記
16 工曹正郎 鳳儀 墓碣銘
16 陵州牧使 鳳輝 墓碣銘
16 贈領議政 涑 墓表
16 贈領議政 滯 墓碣銘
16 靜坐窩先生 潮 墓碣銘
16 嘉善大夫 瀆 墓碣
17 贈吏曹參議 師民 墓誌
17 吏曹參判公 聖希 神道碑銘
17 淸獻公 宅賢 墓碣銘
17 贈通政大夫 礪賢 墓表
17 成均進士 玉賢 墓表
18 贈吏曹參判 毅鎮 墓碣
18 左贊成公 公獻 孝子傳
18 贈通訓大夫 鎰 墓表
19 이조참판 敦永 사적
19 芝軒公 永之 墓表
19 贈領議政 念祖 正祖御製內閣受教
19 贈左贊成 豐之 墓表
20 坐勝堂記 象奎 以威亭記
20 惠山公 能武 墓誌
21 宜珮 世葬遷神道碑文
22 義兵將 守澤 殉節碑文
22 齋陵參奉 晶澤 行狀
22 石田先生 繼澤 墓表
22 竹園公 禮澤 墓表
22 參奉公 榮澤 墓表
22 祕書院丞公 啓澤 行狀
野話
5 安孝公 配位 安夫人 移葬記聞
6 恭肅公 滄 難을 피한 事實
8 舍人公順門 遇禍事實 翁井里 占山 記文
書簡
24 二十四世祖 吉求 書簡

顯祖年譜 目錄

왕조실록에서 발췌

- 世 諱 號·諡號 官職爵位 壽
3 龍 青華府院君 典理正郎
4 德符 青城伯 좌정승 74세
5 仁鳳 좌군도총제
5 澄 인수부윤
5 溫 安孝 영의정 44세
5 淙 청원군
5 沚 동지총제공
6 灑 호연 평산부사공
6 涓 愛菴 감찰
6 石鵠 양혜공
6 潛 심부 영증추공
6 滄 恭肅 영의정 76세
6 決 靖夷 판돈령부사 52세
7 璿 忘世亭 관찰사
7 涓 동지중추공
7 潁 참의공 58세
7 瀚 夷敬 청천군 47세

- 7 浚 관관공 31세
7 貞源 진리좌수사
8 安仁 병마절도사 54세
8 安義 청성위 40세
8 順路 청안군 48세
8 順徑 상대장 81세
8 順門 사인 40세
8 順道 돈녕 76세
9 濱 안성군수
9 連源 忠惠 영의정 68세
9 達源 좌동래 42세
9 逢源 曉窓 동지돈령부사 78세
9 通源 晚翠堂 좌의정 74세
9 義欽 흥문관전한
10 光彦 胡安 좌참찬 79세
10 岱 忠壯 관찰사 47세
10 鎰 천정공 61세
10 銓 관찰사 70세
10 鍵 군수 59세
10 鋼 翼孝 靑陵府院君 54세
10 鐸 漢城府右尹
11 錦 과첨현감 35세

- 11 大孚 泛齋 사간 72세
11 友正 賓竹 부사 54세
11 友勝 晚沙 관찰사 52세
11 友端 士良 縣監 71세
11 義謙 巽庵 청양군 53세
11 忠謙 忠翼 병조판서 50세
11 喜壽 文貞 좌의정 75세
11 源河 장령공 54세
12 宗道 관결사 87세
12 宗尢 숙천부사 62세
12 演 圭峯 관찰사 61세
12 澤 翠竹 감사 66세
12 諶 도정 68세
12 諱 南崖 예조판서 76세
12 諮 鶴溪 청송군 94세
12 悅 忠靖 영의정 78세
12 忻 대교 35세
13 僕 증영의정 61세
13 器遠 좌의정 58세
13 東龜 晴峯 응교 67세
13 光洙 魯溪 공조참의 65세
13 命世 忠肅 공조참판 46세

- 13 熙世 교리 45세
13 儒行 醉醒堂 보덕 55세
14 之漢 滄洲 참의 62세
14 之溟 巽岩 개성유수 87세
14 之淸 寒竹堂 부사직 63세
14 之源 晚沙 영의정 70세
14 攸 梧灘 부제학 69세
14 檀 追尤堂 공조판서 86세
14 機 관찰사 67세
14 曄 승지 72세
14 楸 광주부윤 62세
14 權 관찰사 55세
14 槐 청평군 61세
14 杵 예조판서 63세
14 梓 養拙齋 좌참찬 70세
15 極 좌승지 61세
15 楮 병사공 73세
15 益顯 竹塢 청평위 43세
15 益昌 부사 74세
15 益成 태인현감 42세
15 壽亮 이조판서 49세
15 最良 관결사 70세

청송십씨종보

Table listing 100 individuals with their names, titles, and ages. Columns include name, title, and age.

青松沈氏世稿選目錄 (顯祖183人 詩集)

世號(字) 諱 詩題 卷之1 頁수

Table-Of-Contents for the first volume, listing names, titles, and page numbers.

Table-Of-Contents for the second volume, listing names, titles, and page numbers.

(卷之2)

Table-Of-Contents for the second volume, listing names, titles, and page numbers.

Table-Of-Contents for the third volume, listing names, titles, and page numbers.

Table-Of-Contents for the fourth volume, listing names, titles, and page numbers.

別錄 世稿選(邑誌에서 拔萃)

Table-Of-Contents for the special section, listing names, titles, and page numbers.



〈沈門의 家章〉

靑松沈氏의 貫鄉을 象徵할 수 있는 周王山과 소나무 그리고 沈자로 표현한 賢妃巖과 그 앞을 흐르는 龍川江은 모두가 傳統的으로 長生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形象化

하고 全體的인 調和를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 靑松沈門의 永遠한 繁榮과 子孫萬代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는 意味를 담고 있다. 그리고 둘레의 圓은 陰과 陽을 象徵하는 해와 달을 視覺化한 것으로 先祖의 열과 燦爛한 業績을 後孫들이 永遠토록 繼承하고 發展시켜 나갈 것임을 表現하였다.

〈가장(家章)변경 사유〉

지금까지 사용해온 徽章은 우리가 직접 도안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회장단회의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일가 분들에게 청송심문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장을 공모하였으나 마땅한 작품이 없어서 전문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새로운 「徽章」을 도안하여 2005년 12월 회장단회의에서 심의 채택하였다.

◇ 공모에 응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심봉래(고양시 일산), 심길승(밀양시 하남), 심효식(독일 거주), 심호섭(서울)

2006년도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2006년 4월 27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대총회 업무추진 내용과 결산자료를 심의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승인하고 2006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회의에 앞서 유공 총회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爲先사업에 출선수범할 뿐 아니라 모범적으로 총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총회의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준 蔚山 內禁衛公宗會와 光州 金堂山宗會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금년부터 우리 문중의 徽章을 변경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총회기를 교체하고 뺑지를 제작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고, 대동세보(경진보) 후속사업으로 발간하는 수권속편(의 5종)이 인쇄가 완료되어 5월 초순에는 배포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영구 부회장(2005년 12월 14일 별세) 후임으로 감사원 국장을 역임하신 贊求氏를 副會長으로 선임하고 宗人들의 승인을 받았다.

본 회의를 마치고 성신여자대학교 심우섭(안효공 19대손) 명예교수로부터 「한국전통사상의 재조명(현대적 의미)」이란 주제의 특강을 들었으며, 선임 부회장인 宜洛 副會長께서 청송심씨대총회와 一호여러분들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끝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총회를 마쳤다.

『선광문화재단』 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선광문화재단(이사장 沈明求)에서는 2006년도 제기 장학생 216명을 선발하고 1분기 장학금 81,825,400원을 지급하였다.

- 1. 인천지역 일 자 : 2006. 4. 15(토)
장 소 : 인천고등학교 체육관
- 2. 광탄지역 일 자 : 2006. 4. 22(토)
장 소 : 유일레저타운(마장리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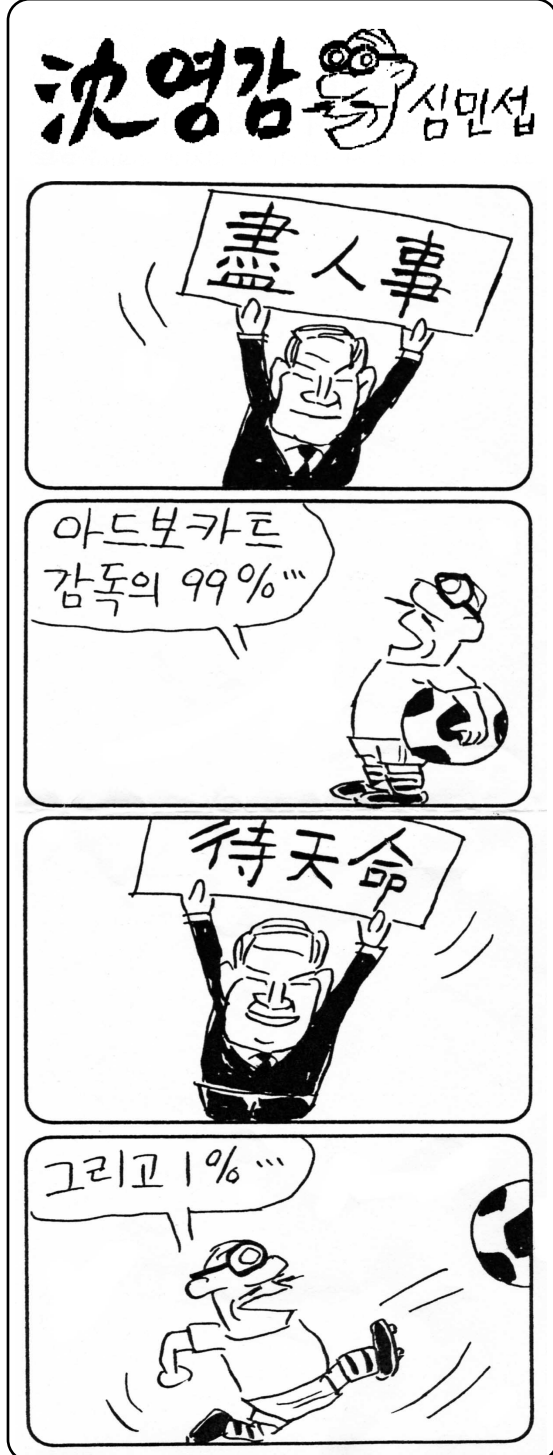
〈재단 현황〉

- 1. 설립일자 : 2002년 3월 26일
- 2. 설립 자 : 沈明求
-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번지

- 4. 목적사업 : ①장학금 지급 ②연구비 지원, ③교육발전을 위한 시상 및 지원, ④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5. 재산현황 : 기본재산 4,000,000천원
보통재산 882,145천원
- 6. 수혜지역 : 인천시와 파주시 광탄면 일원

7. <장학사업 현황>

연도별	학교수	학생수	금액(천원)
1기(2003년)	29개교	64명	110,556
2기(2004년)	39개교	156명	239,960
3기(2005년)	58개교	216명	376,738
계	126개교	436명	727,254



● 송 금 안내 ●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총회 심명구
-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총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체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 송 심 씨 대 총 회
전화: (02)2267-7857

●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

유사 원택 011-9355-3608
호섭 010-5444-2909

青松沈氏 金堂山宗會
任員改選

常任顧問: 相琦
副會長: 勝煥
會長: 憲燮 孝燮 炳燮 在均
總務: 曜安
事務: 潤燮 在九 逸九
監事: (通正) 亨善
理事: (松岩) 夢燮 淳燮 在倫
(碧石) 榮烈 淳燮
(斗岩) 東燮 鶴燮

青松沈氏 都摠制公派宗會
任員名單

顧問: 乙澤 源澤 相烈
會長: 敏燮
副會長: 相鶴 相基
總務: 龍澤 相中
理事: 宣在 宣錫 龍澤 九澤 慎澤 潤澤
相春 相吾 相鶴 春燮

青松沈氏 晉州宗會
任員改選

顧問: 相倫 琬燮 亮燮 在燾 道重 載華
副會長: 吉守
會長: 弘輔
總務: 光輔
理事: 潤秀 文壽 載仁
基祚

青松沈氏 原州·橫城宗會
任員改選

顧問: 弼求 源澤
指導委員: 夏植 在敦
會長: 正輔
副會長: 顯燮 華燮 相天 德用 敏燮 鎬燮
總務: 相基
理事: 斗植 相烈
宜在 潤澤 相春 東來 善來 相浩 相五
永盛 相俊 載燮 元用 廣澤 東燮 相吉
南植 正鎮 春燮 順子 龍澤 相鶴 載玉
載默 一燮 慶植 春輔 相基 相求 宣圭
載春 完燮 相協

**그랜드 캐니언의 장관
기행문 ①**



대종회 이사
沈 晟 求

오늘은 그랜드캐니언을 보러 가는 날이다. 아침부터 들뜬 기분이다. 특히 한 때 고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한 단원, 그것도 글을 쓴 이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내 초등학교 선배이시기에 감회는 더욱 깊다.

미국인이 노후에 거주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란다. 도심지를 벗어나 단층 주택가에 나무들이 많다. 타운하우스 촌을 지난다. 집은 외벽만 짓고 내부는 주인 요구대로 구조를 꾸미기 때문에 집 값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도심에서 산기슭으로 번져간 거주지 밖은 역시 사막이다. 이 사막에서 물만 주면 옥토란다. 수원엔 후버댐 미드호에서 기원한다. 이 미드호는 후버댐으로 인하여 저수되는 세계 최대의 인공호수이다. 호수 양안의 자연을 생각해 본다. 감히 인공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각양각색의 예술이 현현되고 있는 곳이다. 물론 각종의 위락시설도 잘 갖추어진 곳이기도 즐길 거리도 끝이 없다.

차는 후버댐에서 잠시 멈추었다. 1931년 미국이 불황으로 중단되었다가 1932년 공사를 재개하여 1935년에 완성

했다는 뎀이다. 당시 미국 사상 미증유의 4선 대통령으로서, 그는 소아마비로 불구의 몸이기도 했지만 불황을 타개한 대통령이 아닌가. 이 후버댐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면서 그의 위대한 업적이기도 하다. 하루 13만 kw. 연간 40억kw를 생산 공급한다. 보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느껴지지 않는다. 불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라스베이커스의 전기도 이곳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코로라도강. 「유속이 빠르기로도 타를 불허한다」 유타주 남쪽, 레이크파웰에서 흐리기 시작하는 이 강은 4개 주를 경유하여 멕시코를 지나 태평양으로 간다. 23억년 전부터 흐리기 시작한 강이다. 유속은 자그마치 15톤 짜리 바위를 굴릴만 하다니 놀랄만도 하지 않을까. 길이도 1780m. 446km다.

차는 다시 달린다. 고원지대라 편편한 것 같지만 달리는 버스와 고도는 비례한다. 멀리 햄프리스산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다. 시야는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눈을 감았다 뜨면 어느 사이에 시야는 달라졌다. 너무 웅혼한 자연에 압도되었는지, 여정의 괴로움인지 차내는 숨소리를 죽인 듯이 조용하다. 다만 몇 사람만 움직일 뿐. 모두가 정물 같다.

아직도 40년 도로 선상에 있는 킹맨 마을이란다. 앞으로 야 2시간거리. 향나무 숲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숲도 있다. 이제는 원근을 가림 없는 향나무 숲이다. 내려다 보이는 시야의 향나무는 차차 물러서고 누런 초원이 펼쳐진다. 오늘은 처음으로 몇 마리의 소가 누런 풀이나마 뜯

는 것을 본다. 높고 깊고 넓은 만큼이나 전설도 야화도 많겠지만, 누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전할 수 있으랴.

‘아리조나’라는 말은 인디언의 말로 뜨겁다는 뜻이란다. 운석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기도 하다.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자리는 검은 색이다. 이 계곡에 최초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 ‘가스펠드’ 탐험가다. 시도는 했지만 너무 넓어 포기한다. 다음엔 ‘매저’가 찾아간다. 인디언이 3일을 가도 1/3정도밖에 가지 못하여 아예 포기한다. ‘존 예스리포이’ 교수가 호기심을 갖는다. 강의 시원지인 그린 강으로 40일 동안 내려온다. 도중에 부하들이 돌아간다. 교수가 일지를 준다. 귀로에 죽는다. 65일이 되어도 부하들은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 다음 9일을 탐험한 끝에 성공한다. 그래서 당시의 일지는 반토막 남게 된다.

지구의 연령을 60억 년으로 보고 이 캐니언의 나이는 20억 년이 되었다고 전한다. 다시 끝없는 지평선의 사막이다. 처음 미국인이 왔을 때만 해도 아리조나주의 원주민은 약 900만명 정도였던 것이 현재는 300만 정도란다. 원주민 보호지역에서는 마약도, 도박도, 물론 술도 다 허용되지만 교육만은 시키지 않는단다. 마지막 원주민의 추장은 ‘체로미’다. 16개 부족을 언어로 통일 통합하기도 했다. 처음엔 가족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 비참해서다. 결국 협정을 한다. 추장은 원주민의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 백인은 그 대신 푸로이디에 가서 3년만 살다오라고 한다. 동의한다. 그리고 그 곳에 가서 탈출은 했으나 가족 때문에 다시 돌아가 죽는다. <다음호에 계속>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약 1,200P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약 600P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약 400P	20,000원	()권
4. 제향홀기(휴대용)	-약 30P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약 140P	3,000원	()권
6. 뱃 지		1,000원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이 름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지점

기재요령

1. 파명은 봉익공파, 악은공,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인수부윤공, 안효공, 동지총제공으로 구분
2.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3.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명을 기재 하고, 송금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
4. 송금한 은행과 지점명을 기재

공지사항

1. 수권속편 신청금은 대동세보 관리통장 [농협 084-01-179314 심명구]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수권속편 대금을 입금하신 분은 반드시 대종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3. 수권속편이 5월 10일자로 발간되어 신청즉시 발송하고 있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外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청송심씨대종회
우편번호 100-310
전화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강좌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상어효과와 메기효과



부회장 심갑보

캐나다 활어(活魚)운반 열차에 얽힌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한다. 캐나다는 워낙 광대한 땅이어서 동부대서양 연안에서 잡은 활어들을 수조(水槽)기차에 실어 서부로 운송하는데 사흘이 걸리다보니 운반도중에 죽는 것도 여럿이 나오고 살아남은 물고기들도 대부분 시들시들해졌다. 어민들은 고민 끝에 아이디어 하나를 냈다. 수조 속에 작은 상어 한 마리를 넣었더니 몇몇 물고기들은 '상어 밥'이 되었지만 나머지는 사흘을 아주 생생하게 견뎠다. 상어를 피해 도망 다니느라 늘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교훈을 담은 메기이론이 있다. 미꾸라지를 키우는 농부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그냥 눈에 미꾸라지만 넣고 키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미꾸라지와 함께 몇 마리의 메기를 넣어 키우는 사람이다.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왜? 난데없이 메기 얘기가 나오면 모르지만 메기를 넣어 키우는 미꾸라지가 그냥 키운 미꾸라지보다 훨씬 통통하고

토실토실한 살이 붙는다고 한다. 미꾸라지들이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돌아다니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메기와 함께 자란 미꾸라지들은 일부는 메기의 밥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메기효과다.

끊임없는 긴장과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고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우리기업들은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기업의구성원들이 태평성대, 무사안일에 빠져 있으면 어느 순간 경쟁력을 잃게 되고 M&A의 대상이 되거나 도산의 위협에 빠지게 된다.

세계경제연구원의 전성철 이사장은 기업사냥꾼들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략하지 않는다며 먹어봐야 키울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1970년대 미국경영자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에 처했을 당시 '메기효과'가 입증되었다고 강조한다. 전(全)이 사장은 '기업사냥꾼들이 실적 나쁜 몇 개의 기업을 먹어 삼키자 다른 경영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미국기업전체의 효율성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미국 월가의 기업사냥꾼들이 미꾸라지 속 메기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SK의 최태원 회장이 진정한 경영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소버린'이라는 메기의 역할 덕분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회사들 중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구책과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었지만 매출이나 수익 측면에서 순탄하게 나가는 기업들의 경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기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라 생각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언제 폭풍우가 몰아닥칠지, 상어나 메기의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 평화로운 때 위난에 대비하고 잘되고 있을 때 허리를 졸라매어 불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기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경쟁력의 향상이다. 고유가·고임금·경직된 노동환경·반(反)기업정서·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의 저 가격 공산품들이 국내시장에 침투하여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생산성향상·소수정예주주의에 의한 일인 다역의 업무추진을 상시화 해야 할 것이다.

급여체계 면에서도 연공서열 주의에서 탈피하여 업무실적과 회사에 대한 공헌도 및 노동생산성을 평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때 메기나 상어 등 어떤 위협이 공격해 오더라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

심갑보 삼익THK(株) 대표이사 부회장

상호 및 주소변경 안내

- 삼익LMS에서 삼익THK로 변경 -
당사는 3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4월 20일부터 삼익THK(주)로 변경하고, 대구 달서구 월암동1005번지, 10,000평의 부지에 신사옥과 공장을 건설하여 입주를 마쳤습니다.

獨島는 韓國領이다

이 『獨島』라는 이름은 심흥택(沈興澤)公께서 1906年 울릉郡守로 있을 때 지은 이름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을 침탈하려는 자들이 있어 심기가 몹시 불쾌하다.

기록에 의하면 지금의 울릉도는 新羅國때 于山國(于山島)으로 불리었으며 新羅22代 智證王(西紀 512年) 이사부(異斯夫)장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섬에는 188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이 이주하게 되었는데 日人들은 때때로 주변을 맴돌며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 울릉도는 2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며 큰 섬은 울릉도이고 작은 섬은 속도(屬島: 지금의 독도)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도는 처음부터 당연히 韓國領이다.

그러나 日本은 露日戰爭때 독도를 아무 합의도 없이 擄樓와 전쟁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그것을 계기

로 (1905년)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정(島根縣)의 속도로 등재하였다. 다음해 독도를 시찰하러온 시마네정 관료10여명은 울릉도에 들러 당시의 郡守 심흥택公을 찾아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니 앞으로는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심흥택 군수는 이 말에 대노하여 남의 땅에 와서 함부로 말한다고 쫓아버리고 이어 항의단(抗議團)을 日本에 보내 다시는 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의하고 돌아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의 종말을 朝廷에 보고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울릉도의 속도라고만 되어있어 마땅한 이름이 없던 차에 『獨島』라는 이름을 붙여 조정에 보고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 보고서를 접수하고 섬 이름을 『獨島』로 인정하였으니 그것은 지금부터 100년 前의 일이다. 日人들이 1905년 우리보다 먼저 선점(先占)했다고 하는 말은 억지주장이다. 그리고 강압에 의해 탈취 당한 물건이나 재물의 취득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1895년 淸日戰爭에

서 中國을 누르고 우리 國母를 시해하였으며 1905년에는 소련까지 물리치고 朝日間に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어찌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 兩大國을 무너뜨리고 國母까지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는 우리를 보고 오만해질 때로 오만해진 일본은 오래 전부터의 계획된 야욕대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1910년에는 기어이 나라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후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으니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유독 그것만은 그들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니 아직도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음침한 속내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해방이 된지가 60여년 인데 지금 것 해방은 미완성인가!. 우리의 자존심을 또다시 몽개려는 일본에 대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때 우리 모든 국민은 하나로 뭉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 32 -

신소재개발

新素材로 開發한 특수한 建築資材

建築資材 취급 사업으로 30여년간을 이어온 沈樸求(光州: 금성건설사 대표)씨는 建築資材의 素材가 항상 화재에 취약하여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오면서 꾸준히 연구하여 오던 중 마침내 풀, 나무, 벗집, 보릿집, 점토 등을 배합하여 合板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폐자재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건축자재를 발명하였다.

발명의 명칭은 『초목분쇄물과 점토를 이용한 다양한 판재와 판재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발명특허 제 0427953호)』이며, 美國과 中國에서도 각각 특허를 받아 요즘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송심씨 카페 개설

<Shim032 카페 오픈 1주년을 넘기며>

희망찬 설계 속에 심씨종회카페를 개설한지도 어언 1주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2일 Shim032 카페개설의 막을 연지가 1년이 넘어섰다. 푸른 꿈을 안고 개설을 하여 사이버 상에 종친간의 대화의 광장이요 휴식터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설을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 역할이 미미하나 앞으로의 그 역할은 기대가 크다. 캄캄한 종친들도 캄캄을 탈출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몇쟁이 노인들이 되길 바라면서 카페주소와 가입 요령을 다시 알린다.

◆카페주소는 : (www 없이) cafe.daum.net/shim032로 들어 오시면 되며 카페 가입전에는 손님으로 읽을 수만 있음.(<유모아와 풍자>는 제외) 가입해야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어야 글이나 꼬리말을 올릴 수 있음.

◆카페가입 요령은 : 카페가입이란 표를 dick하고 컴퓨터가 요구하는 데로 따라하면 가입 등록이 끝난다. (즉 카페가입

▶회원가입(실명)▶회원 종류에서 일반고객▶약관/동의서에 동의▶실명증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확인하는 설치 후)▶최종 사과 먹은 아이 찾기 게임이 끝나면 가입완료 됨

<심명구 (인천종회 감사)종인 소설가로 문단 등단>

심명구 종인이 '팔월의 태양 아래'라는 단편소설로 문학기 <뿌리>를 통해서 지난 2005년 7월 22일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소설가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며 文運이 더욱 왕성하시어 한국문학사에 큰 足跡을 남기시길 기원합니다.

※<뿌리>문예지는 季刊誌로서 13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문학계의 대표적인 문예지이다. 심명구의 소설이 2005년도 가을호에 <八月의 태양아래> 그리고 2006년도 봄호에 <서울에서 온 便紙>로 발표된 바가 있고 금년 여름호에 <入隊하는 날>로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뿌리>문예지는 유명서점에서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宗 事 消 息

始祖文林郎公(諱洪孚)春享奉行

4월 6일(음:寒食節)

初獻:蓮澤
亞獻:相郁 宜在
終獻:相汶 花伏
大祝:相國
執禮:華燮
執事:相海 相培 相學 載澈



▶始祖墓所 初獻官 蓮澤



▶中臺山 山所 獻官:沈相夏(鐵原)

▶祭需獻誠金
鐵原宗會:100,000 禮泉 마천면우천면중중:100,000
沈相八:100,000 春川信川公宗會:200,000
蔚山內禁衛宗會:200,000 都總制公宗會:200,000

二世祖 閣門祇侯公(諱淵)春享奉行

4월 8일(음 3월11일)



閣門祇侯公 妣位
初獻:相泳(益山會長) 相泳
亞獻:相敦(華城) 載官(南서울宗會總務)
終獻:桂燮(金浦) 和燮(昌原)
大祝:相根(全州)
執禮:相稷(安孝公宗會總務)
執事:瑛術 炳燮 尙道 載澈 昌燮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300,000 양계공과종중회장:200,000
承澤(蔚山宗會文):300,000 光州 金臺山宗會:100,000
南 서울宗會:100,000 載桓(麗水):100,000
都總制公宗會:100,000 全北宗會:100,000
正殿公派咸安·淸宗會:100,000 全北青松會:100,000

三世祖 青華府院君(諱龍)春享奉行

4월 10일(음 3월13일)



青華府院君 妣位
初獻:豆周(安城) 豆周
亞獻:五澤(原州) 承澤(禮山)
終獻:世求(蔚山) 相八(光州)
大祝:光澤(安성)
執禮:相稷(安孝公宗會總務)
執事:載澈 俊澤 愚夏 載澈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300,000 都總制公宗會:100,000
承澤(蔚山宗會文):300,000 奎澤(서울남가좌):100,000
蔚山內禁衛宗會:200,000 相德(安城):100,000

四世祖 青城伯(諱德符)春享奉行

4월 12일(음 3월 15일)



青城伯 妣位
初獻:斗燮(副會長) 相文(春川)
亞獻:源澤(原州) 相勳(金浦)
終獻:揆玎(蔚山) 相燮(水原)
大祝:相直(인천)
執禮:相稷(安孝公宗會總務)
執事:愚夏 載澈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300,000 都總制公宗會:100,000
蔚山內禁衛宗會:200,000 相勳(金浦宗會長):50,000
春川 信川公宗會:100,000

四世祖妣(淸州宋氏)春享奉行

2006년 4월 14일(음 3월 17일)



▶四世祖 조배위 청주 송씨



▶五世祖 도충제공

初獻:成輔(淸州宗會長) 大祝:相昊(淸州)
亞獻:相錄(長城) 執禮:相稷(安孝公宗會總務)
終獻:奎澤(서울) 執事:載澈 尙道

都總制公
初獻:相弘(大田) 載龍(淸州)
亞獻:洪燮(長城) 行燮(長城)
終獻:相鎮 行燮(長城)
大祝:相錄(長城) 執禮:相昊(淸州) 執事:尙道(全州)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300,000 都總制公宗會:200,000
晚窓公宗會:100,000 奎澤(서울남가좌):100,000
長城良溪書院:100,000 相昊(長城):50,000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春享奉行

4월 11일(음 3월 14일)



初獻:豆周(安城) 大祝:光澤(安城)
亞獻:興來(忠州) 執禮:相稷(安孝公宗會總務)
終獻:相旭(安城) 執事:載澈(서울), 載銀(安城)
▶祭需獻誠金:承澤 300,000

四世祖 岳隱公(諱元符)春享奉行

4월 22일(음 3월 25일)



岳隱公 令同正公 石村公
初獻:榮燮 榮燮 榮燮
亞獻:宜洛 宇永 璣用 完燮 相伯 載鑛
終獻:水澤 寅澤 相錦 奎澤 載澈 義用
執禮:宜亮 東燮 宜亮
大祝:揆範 沈煜 昶燮 華燮
執事:源澤 相燾 昶燮 一澤 昶燮 君燮

六世祖 良惠公(諱石雋)時享奉行

4월 17일(陰:3월 20일)



良惠公 妣位 滄洲公
初獻:晶求 晶求 大燮
亞獻:大燮 相華 璋燮
終獻:昌燮 求亨 洪燮
大祝:相直(인천)
執禮:載冕(인천)

七世祖 忘世亭公(諱璿)春享奉行

4월 20일(음 3월 23일)



忘世亭公 妣位
初獻:晶求 晶求
亞獻:贊求 根植
終獻:相華 求亨
大祝:相直(仁川)
執禮:載冕
執事:載求 鍾赫

世宗大王 忌辰祭 奉行

4월 8일(음 3월 11일)



亞獻官:忠燮(大宗會理事)

청 송 심 씨 종 보

8 제59호 2006년 5월 20일

昭憲王后 忌辰祭 奉行

4월 28일(음 4월 1일)



亞獻官: 彥植

仁順王后 忌辰祭 奉行

4월 23일(음 3월 26일)



亞獻官: 載求(大宗會理事)

參祀者: 斗變 永澤 相稷 相鶴 奎澤 昌變 百變 景섭
章變 容圭 載澈 允輔 左輔 種福

端懿王后 忌辰祭 奉行

3월 26일(음 2월 27일)



亞獻官: 洪變(大宗會理事)

執事: 載澈(大宗會理事)
參祀者: 斗變 相稷 相弘 相鶴 相富 昌變 百變 昌輔
左輔 種福 載烈 容圭 奎澤

淑容沈氏 忌辰祭 奉行

4월 16일(음 3월 19일)



終獻官: 沈奎澤(서울 남가좌동)

參祀者: 斗變 永澤 載烈 相稷 洪變 百變 昌變 容圭
載澈 種福 左輔

宗廟大祭 奉行

5월 7일(음 4월 10일)



亞獻官: 洪變(大宗會理事)

- 誤字訂正(宗報58號) -

- 1 面: 上段 11世(祖)를 11世(祖)로 訂正
- 8 面: 訃告- 泰變(대종회이사)
配位 (豊陽)趙氏를 (漢陽)趙氏로 訂正

人 事

沈영섭: 우림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심광섭: 신우이사
심재진: 카스코이사
심택일: 경기방송 편성제작부국장
심재규: 농수산부 서기관 식량정책국
沈圭燮: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장
沈惠英: 성결대학 중어중문학과장
沈成補: 서울보증보험 국제업무팀장
沈 勳: 금융통화 위원(부산은행장)
沈元植: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팀장
심영만: 산림청 중부지방 산림처장
沈秉漢: 이태일리 경영지원팀장
沈東燮: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
沈宜英: 금융감독원 기획조정 법무실장
沈垈柱: 흥림종합건축 사무소이사
沈範柱: 쌍용자동차 연구소과장
심경수: 충남대학 법과대학장
沈載烈: 한국항공사업단 항공구조 그룹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부이사관 정책총괄팀장
심인섭: 산업은행 산은기술평가원장
沈相雲: 산업은행 리스크관리 본부장
심재경: SK.압구정 지점장
심백남: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사업단장

理 事 會 費

文錫	50,000	2006	고양 일산동
勇鎮	150,000	2004~5	서울 신길동
忠燮	50,000	2006	廣州 장지동
左輔	50,000	2006	仁川
春輔	50,000	2006	서울 합정동
應瑋	50,000	2006	果川 중앙동
鍾玉	50,000	2006	용인 구성면
光永	50,000	2006	서울 반포동
萬仁	100,000	2005~6	부산
鍾赫	50,000	2006	대종회
種福	50,000	2006	"
載今	50,000	2006	서울 정릉동
珉燮	50,000	2005	정읍
相洵	50,000	2006	영등포 여의도동
載善	50,000	2006	인천 신흥동
載炫	50,000	2006	여수
相億	50,000	2006	수원 이의동
敏燮	50,000	2006	원주
在叔	50,000	2006	김천 봉산면
宜錫	50,000	2006	김천 모암동
行燮	50,000	2006	장성 삼서면
尙道	50,000	2006	전주 증노송
相龍	50,000	2006	수원 이의동
相副會長	300,000	2006	용인
載珍	50,000	2006	서울 흥제동
玄根	50,000	2006	대전
正秀	50,000	2006	전주
宜哲	50,000	2006	대전 갈마동
相夏	50,000	2006	철원 동송읍
相副會長	300,000	2006	포천
相汶	50,000	2006	춘천
贊求	50,000	2006	분당 서현동
鍾根	50,000	2006	전주
容奭	50,000	2006	醴泉
효鏞	50,000	2006	예천
相英	50,000	2006	김포
成輔	50,000	2006	청주 사직동
相昊	50,000	2006	청주 비하동
載龍	50,000	2006	청주 석교동
愚範	50,000	2006	서울 잠실동
應輔	50,000	2006	울산 신정동
根植	50,000	2006	울산 범서면
炅植	50,000	2006	울산 아음동
壽輔	50,000	2006	울산 무거동
花鮮	50,000	2006	예천
載冕監事	200,000	2005	인천
瑢燮	50,000	2006	함열
政燮	50,000	2006	안성 일죽면
佶燮	50,000	2006	익산 영등동
相泳	50,000	2006	익산 삼기면
愚夏	50,000	2006	서울 여의도동

鍾漢	50,000	2006	진천
愚龍	100,000	2005~6	서울 마포
在安	50,000	2006	인천 용현동
愚增	50,000	2006	서울 구산동
相甲	50,000	2006	철원
相鶴	100,000	2005~6	증평
洪燮	50,000	2006	서울 봉천동
安輔	50,000	2006	전주
秀一	50,000	2006	전주
載善	150,000	2004~6	공주
秀永	50,000	2006	전주
相貴	50,000	2006	정읍
洵燮	50,000	2006	안양 관양동
垈燮	50,000	2006	대구 신천동
暎求	50,000	2006	서울 진관동
甲澤	50,000	2006	부여 장암면
愚慶	50,000	2006	光州 우산동
仲燮	50,000	2006	부여 임천면
相勳	100,000	2005~6	김포 대곶면
茂植	50,000	2006	삼척
吉守	50,000	200	진주
相高	100,000	2005~6	진천
中鎮	50,000	2006	충주 연수동
載警	50,000	2006	인천(부평)

성금감사합니다

- 宗 報 誠 金 -

宗會	100,000	사복시정공종회
玄根	50,000	대전종회 회장
민섭	30,000	
상한	30,000	
相汶	100,000	춘천종회 회장
宗會	100,000	춘천 신천공파종회
晟求	30,000	춘천
昶柱	50,000	춘천
垈柱	30,000	춘천
範柱	30,000	춘천
宗會	200,000	청주종회
명섭	100,000	신당동
경구	30,000	서울 신정동
경보	100,000	경북 영양군
宗中	150,000	김포 하성중
대섭	30,000	태백
우만	30,000	천호동
월계동	30,000	
윤중	100,000	청평
榮	30,000	용인 상현동
우형	30,000	천호동
유섭	100,000	증랑 웨딩문화원
敏燮	100,000	원주 단계동
載善	50,000	공주
유택	30,000	제기동
영섭	50,000	인천 부평
상덕	30,000	흑석동
鳳燮	30,000	군포시
愚慶	50,000	光州
宗會	200,000	晉州宗會
明燮	50,000	양평 아신리
宗會	100,000	승사랑공(牙山)
宗會	200,000	高尺宗會(鎭川)
載警	50,000	인천(부평)

2006年 36회 總會贊助

鎭川高尺宗會	1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大邱宗會	100,000
相華(일산)	50,000
先武宗會(표의사)長城	50,000
載文(忠州)	30,000
承澤(禮山宗會長)	300,000
仁川宗會	200,000
玄根(大田)	50,000
南서울宗會	100,000
堯澤(영등포)	50,000
全北宗會	200,000
光州金堂山宗會	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우찬(하남시)	50,000
백규(석관동)	30,000
相福(신림동)	50,000
載斗(화곡동)	50,000
忠燮(廣州)	100,000
金泉宗會	50,000
長湖院宗親會	50,000